

판사 인사제도 도입 논의

비효율적 이동 줄이고 일부 장기근무제 검토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 인사 투명성·재판 신속성 제고 잦은 인사, 효율·연속성 ↓ 비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잦은 대규모 인사이동을 줄이기 위한 방향의 인사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에 판사들의 선호도가 낮은 '비경합법원'에 대해서는 장기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 게시글을 올려 내년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비경합법원 장기근무제' 도입 여부가 주된 연구·검토 대상이며 2020년 법관 정기인사희망원엔 간략한 설문조사가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법관 전보인사는 서울권, 경인권, 지방권을 순환하는 형식으로 2~3년 전국 단위로 이뤄진다.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법원장 권한이다. 이 때문에 일선 판사들이 워선의 눈치를 보는 법원 내 관료화 현상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잦은 인사가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조 처장은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잦은 인사는 재판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저해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형성돼 온 원칙과 관행에 따라 전보인사를 단행하더라도 인사 재량이 남아있는 한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불식시키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10년으로 상향되는 2026년 이후 현재와 같은 전국 단위 전보인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40대 초중반의 법조인들이 전국 단위로 이사를 하면서 근무를 해야 할 경우 법관 지원을 꺼릴 수 있다는 의미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인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경합법원 장기근무 제도를 제시했다.

비교적 근무지로 선호되지 않는 법원의 경우 법관들의 희망을 받아 장기근무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조 처장은 "대법원장께서 '전보인사 권한 축소 방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안건으로 부쳤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에 이에 대한 연구·검토를 회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기, 시행 여부, 시행 시기에 대해 어떤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도 이어진다. 올해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의 숫자는 종전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든 바 있다.

/손현경기자 son89@metroseoul.co.kr

변호사는 잠재적 범죄자? 금속 탐지기 몸 수색 반발

대한변호사회 "변론권 위축" 주장 법원행정처 "실태 파악 후 개선 검토"

일부 법원이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금속탐지기로 몸수색을 하는 것은 변호사의 변론권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회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수원고등법원 등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몸수색은 법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변호사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하는 등 몸수색까지 한다는 것은 변호사와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사법체계에서 변호사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전근대적인 사고가 투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대법원 내규를 개정할 때

는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등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같은 과정이 생략됐다"며 "위험적 요소가 있는 법원 내규의 개정을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9월24일 대법원이 시행하는 '대법원 법원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개정안' 제13조보안검색에 따르면 '소송대리인, 기타 보안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사람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배지, 신분증) 등을 제시한 경우 검색만 하고 가방 등 휴대품 검색은 생략할 수 있다'에서 '임신부를 제외한 모든 출입인원에 대해 검색을 한다'로 바뀌었다.

이같은 배경에는 지난해 11월27일 1인 시위를 벌이던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고, 지난 1월 소송결과에 불만을 품은 80대가 밤새 대법원 건물에 머물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법원 청사 내부의 보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전국 법원의 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손현경 기자

교원 '레드펜 코딩' 출시

이젠 코딩도 '홈스쿨링 시대'

34년 교육 노하우·전문 인력 투입 국내 첫 '전집 연계 통합형 프로그램' 코딩 동화로 스토리 더해 흥미 ↑

"선생님 없이 놀이하듯 코딩 배운다" 교원그룹(대표 장평순)이 전집 연계형 코딩 교육 프로그램 'REDPEN(레드펜) 코딩'을 오는 14일 출시한다. 코딩 교육에 스토리를 담아 놀이하듯 코딩을 배울 수 있어 코딩 홈스쿨링이 가능하게 특징이다.

교원그룹은 제품 출시에 앞서 6일 기자들에게 레드펜 코딩을 공개했다. 레드펜 코딩은 6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집에서 쉽게 코딩을 학습하도록 홈스쿨링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재 시중에 출시된 코딩 제품은 조립형, 로봇형, 모듈형, 보드형 등 4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형태에서 오는 제약이 따르고 지도 가이드 등이



교원그룹 부의장 에듀사업본부장이 6일 REDPEN 코딩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원그룹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약 1년의 개발 기간 중 교원그룹의 34년 교육 노하우와 자사 전문 인력이 투입됐고, 에듀테크 스타트업(주)릭스로보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전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로봇 모듈교구 '모디'를 레드펜 코딩에 접목했다. 특히 아이들이 스스로 흥미를 붙이도록 코딩 동화로 스토리를 더했다. 코딩 동화는 코딩의 개념과 초등 교과

개념이 결합된 내용으로 흥미와 집중력을 높인다. 다수의 전문 동화작가들이 집필에 참여했고 서울교대 구덕희 교수가 감수해 완성도를 높였다.

놀이하듯 코딩 교육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학습자는 먼저 코딩 동화를 읽으면서 코딩 퍼즐과 모디 블록을 찾게 된다. 찾은 코딩 퍼즐로는 캐릭터를 움직이며 게임하듯 미션을 완수한다.

이후 모디 블록과 페이퍼 토이를 활용해 총 78개의 코딩 발명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도움 영상인 '똑딱 모디 TV'를 통해 이해도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엔트리'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 직접 코딩을 해 발명품을 전송하고 이를 움직이게 만들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것을 현실화해 볼 수 있다.

특히 교원이 고안한 '상상-실행-구현-응용'의 4단계 훈련을 통해 융복합적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다음주 수능' 입시전문가가 말하는 학습법

새로운 내용 학습보다는 복습 위주 수능특강에 제시된 지문 다시 숙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다. 입시전문가들은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 보다는 복습 위주의 학습을 통해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험 전까지 자신의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학습, 주요 영역별 학습대책 방법을 입시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봤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문제는 이러한 학습이 현실점에서 유용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한다. 새로운 교재나 문제를 마주하는 순간,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정복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오히려 그동안의 학습 패턴을 망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계속 틀리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 배웠던 내용이

혼란이 생기고 수능 자체에 대한 자신감마저 잃을 수 있다.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은 새로운 무언가를 학습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익숙한 교재와 문제, 정리노트 등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확실하다. 김 소장은 "수능에서는 모르는 문제를 푸는 것이 상으로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고 점수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어영역에서는 남은 기간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는 독서 문항과 문법 문항에 대비하여 수능특강에 제시된 법과 경제 관련 지문들을 다시 숙지하고, 문법 이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학 영역은 현 시점에서 고난도 문제, 특히 킬러문제에 큰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손현경 기자



/건국대

건국대 '월드리더' 밀착 관리

건국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글로벌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년간 장기적으로 학생들을 통합 관리하는 '월드리더 3기' 학생 30명을 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전원 2학년 재학생으로 구성된 월드리더 학생들은 선발 시점부터 졸업까지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대해 밀착 관리를 받게 되며, 대학원 진학, 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 인기유튜버 초청 특강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호)는 미래교육원(원장 최은경)이 오는 8일과 15일 오후 4시 세종대 대양AI센터 B107호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특강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1인 미디어 및 콘텐츠 기획제작에 관심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유명 강사들을 초청해 콘텐츠 기획이나 촬영 장비를 활용한 연출 기법을 배우는 실습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인기 유튜버 'solfa(윤성원)'가 콘텐츠 기획 파트를 진행한다. solfa는 국내외 129만 구독자, 최고 조회수 3300만, 누적 조회수 2억뷰를 기록했으며, '100만이 보는 유튜브 콘텐츠 기획법'이라는 주제로 전체 학생 대상의 강연을 진행한다. /한용수 기자

삼육대 학생 스타트업, 창업지원비 2640만원 받는다

삼육대 학생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야하잇(YAHAIT)이 울산항만공사 스마트항만물류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19 스마트 항만물류 창업아이템 발굴 지원사업'에 선정돼 264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받게 됐다.

'스마트 항만물류 창업아이템 발굴 지원사업'은 스마트 항만물류 분야 혁신적인 기술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현장견학부터 기초사업화자금, 창업 공간, 컨설팅, 전담 멘토링 등 창업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한다.

삼육대 야하잇은 항만 물류를 최적



/삼육대

화하는 '스마트 컨테이너' 아이템으로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해운산업 주요 운송수단인 컨테이너에 IoT를 접목한 시스템으로, IoT센싱,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 및 최적화 알고리즘 기능을 제공한다. /손현경 기자